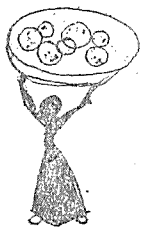


회복 불가능한 큰
피해 가져오는 수도

출 문제



李 熙 永

되도록 약 안쓰고 고치는 것이
남용하면 회복 불가능 피해가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만큼 약을 쓰기 좋아하는 국민도 없으리라! 실제 치료약이란 인체에 '유해무익한 것으로서' 가급적 약을 쓰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다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부로 약을 쓰게 된다.

위의 같이 약을 함부로 쓰면 해로운 것이나 그 중에서도 특히 「호르몬」제의 남용은 회복 불가능 한 큰 피해를 받는 때가 없지 않다.

「호르몬」은 서로 균형이
유지되어야

우리 몸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내에서 분비되는 20여종의 각종 호르몬이 체인(chain)을 구성하여 서로 협력하고 또 억제 하면서 그 생체 내부 환경유지 기능을 완수 한다. 이들 호르몬의 상호 협력작용은 마치 「십포니 오케스트라」에 비유할 수 있다. 즉 이 「호르몬 오케스트라」는 뇌하수체 전엽의 성선 자극 호르몬이 지휘자가 되어 전체 호르몬계의 균형을 취하며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도록 지휘를 한다. 이들 약사중에는 제 1 바이올린에 해당 하는 「성 호르몬」, 제 2 바이올린에 해당 하는 「갑상선 호르몬」, 베이스에 해당하는 「취장 호르몬」, 드럼에 해당하는 「부갑상선 호르몬」등 등의 여럿이 있어서 각자의 맡은 부분을 잘 연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 나오게 된다. 즉 어느 한가지가 강해도 안되고, 약해도 안되는 것이 호르몬계의 균형유지의 철칙이기도 하다.

5세 아기에겐 남성 호르몬을
먹였더니...

젊은 부모가 외국 유학을 간 동안 5세 된 손자의 양육을 맡은 조부모는 손자가 빨리 그리고 건강 하게 크기를 원한 나머지 보약을 먹인다는것

특 집

이 「남성 호르몬」이 포함 된 「강정제」를 먹었다. 두 달만에 어린이의 고치는 소년것 만큼 커졌고 음모가 나기 시작 했으며 턱에는 솜 털이 보였다. 이와 같은것은 조속현상이 「남성 호르몬」의 과용으로 온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으리라! 이들 조부모께서는 「남성 호르몬」으로 조속 되었으니 여성 호르몬」을 쓰면 이 조속현상이 중화되어서 원상복구 되지 않을까 하는 터무니 없는 오해를 하고 있었다.

암인줄 모르고 뎀포를 맞은 경우

중년 신사 甲씨는 정력감퇴를 개선시키기 위해 약국에서 「뎀포」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사서 몇달을 계속 했다. 그랬더니 감퇴된 정력은 개선 향상되지 않고 전신이 쇠약되는 동시에 오줌 누기가 힘들어지기 시작 했다. 병원에서 전문의의 진찰을 받은 결과 전립선암(前立腺癌)이라는, 뜻밖의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다. 이 甲씨는 「전립선 암」이 「남성 호르몬」의 과용으로 악화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력의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어느 호르몬이든 과용을 하면 음식물과용으로 소화불량이 오듯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일단 이와 같은 역효과가 나타나면 그것은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되고 만다.

먼저 소변검사부터 해 보라

따라서 「호르몬」의 사용은 특히 주의할 요하며 사전에 자신의 「호르몬」계의 실정을 파악하여 그 과부족을 제산하고 난 뒤에 쓰면 탁호를 나타낸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24시간 뇨를 모아서 그 속에서 「뇌하수체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의 함유량을 알고 난 뒤에 부족한 호르몬만을 보충하는 것이 유효하고 안전한 방법이 된다.

(필자=서울의대 비뇨기과 교수)

> 세계의 화제 <

음악 소리가 나는 분수(噴水)

세계에는 별난 분수가 있다. 물이 솟는 분수, 아름다운 조각에서 솟아지는 분수, 조명(照明) 장치를 해서 천연색으로 아름진 분수, 규모가 엄청나게 큰 분수 등, 세계 각국은 서로 자기들 분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 소리가 나는 분수가 있다면 모두들 놀랄 것이다. 즉 일본 埼玉縣 所澤市에 있는 西武園의 음악 분수가 그것이다. 이 분수에는 분출관(噴出管)이 2,366개 되는 거대한 분수인데, 그규모는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하며 여기서 물이 하늘로 솟아 오를 때는 여러가지 신비로운 음악 소리가 난다고.